

제주도의 본풀이와 민담의 교섭양상

- 삼두구미본을 중심으로 -

현승환*

<차례>

- I. 서론
- II. 삼두구미본의 전승양상
- III. 문화배경
- IV. 신화와 민담의 교섭
- V. 결론

국문요약

오늘날 전승되는 설화들을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누고 있지만 그 각편이 처음에는 어떤 성격의 설화에서 출발하였을까는 확인하기 어렵다. 신화에서 출발하여 신성성이 사라지면서 전설로, 민담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하거나, 민담에서 출발하여 신화로 굳어진다고도 한다. 어느 한 방향으로 종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설화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제주도에서 구연되는 일반신본풀이는 12개가 있지만, 채록자에 따르면 그 외로 몇 가지가 노래불려지지 않는 신화로 남아있다. 그 중 하나인 삼두구미본 풀이를 보면,

이것의 전반부는 괴물이 혼인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이고, 괴물이 주인공이다. 후반부는 지상의 여성이 괴물과 혼인을 하기 위해 타계로 간 후 벌어지는 이야기로 여성의 위기 극복 과정이 중심내용이며, 여성이 주인공이다.

이 설화의 공간은 산으로 건국신화에서 보이는 공간배경과 그 성격이 같다.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교육과학연구소 소장

산위는 선계요, 산 아래는 악계인 셈이다. 아버지와 세 딸, 괴물이 등장하여 사람의 다리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갈등이 중심 사건이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막내딸이다. 이것의 의미는 성인으로서의 자격을 확인하는 입사식 의례로 볼 수 있다. 현실세계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고난의 상징인 괴물과의 투쟁을 통해 여성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능력만으로는 괴물을 퇴치할 수 없다. 그래서 이묘의례에서 달걀, 버드나무, 무쇠덩어리의 주술적인 힘을 통해 괴물을 퇴치한다. 이러한 주술성은 난생설화, 버드나무의 주술성, 야장의 영웅성 등의 힘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설화 속 혼인은 구매혼, 외혼제, 부계제 사회의 혼인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장례방식은 이중장제를 취하고 있고, 그 혼적은 티벳의 천장(天葬)과 유사하며, 이는 몽골의 제주 강점기 때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본토와 제주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설화가 민담과 신화로 전승하고 있다. 이들은 통과의례에서의 성인식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여성의 성인식은 풍요와 재생의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속성은 풍수지리사상이 유입되어 조상과 후손과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후손은 조상의 덕택으로 현실에서의 삶의 풍요를 기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삼두구미본풀이, 혼인방식, 장례방식, 성인식, 천장(天葬), 라마교

I. 서론

설화를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누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나 이는 연구자들이 편리하게 구분하고자 한 결과이다. 설화의 분류는 민족에 따라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설화에 해당하는 말이 옛말이며, 이 속에는 신화, 전설, 민담의 성격이 공유되고 있다. 순수한 우리말인 옛말은 옛날부터 전해온 말이란 의미인데, 이를 한자로 고담, 또는 전해온 말이라는 뜻을 강조해 전설이라 한다.

제주도 사람들이 인식하는 바는 남성은 근거가 뚜렷한 이야기인 전설을 즐기며, 더불어 흥미본위의 이야기인 고담도 즐긴다. 신화라 할 수 있는 본풀이의 내용은 유학을 공부하는 자신들이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하여 ‘허드랑헌 말’ 정도로 폄하한다. 반면에 여성은 남성들과 같은 관념을 가지면서도 향유하는 분야가 다르다. 전설을 이야기하려면 근거를 분명히 들어야 하기에 그럴 자신이 없으면 잘 말하려 하지 않고, 흥미본위의 이야기는 고담이라는 용어를 수용하면서도 옛말이라 하여 남성들과는 다른 용어를 고집한다. 남성들이 한자어를 씌으로써 유식하게 보이려는 의도가 있음을 감안하면 옛말이 우리의 장르인 셈이다. 신화는 본풀이로 신성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모든 일이 본풀이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제주도에서 실제 큰굿에서 노래불러지는 본풀이는 12개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된 제주도 본풀이에서 노래로 불리지지는 않지만 조사자가 조사할 당시 신화로 인정하여 신화로 분류해 놓은 것들이 몇 편 있다. 진성기는 특수본풀이라 하여 세민황제본, 동방세기본, 원천강본, 허웅애기본, 영감본, 웃당본·알당본, 삼두구미본, 산신본, 조왕본, 용왕본, 열두선양본, 십이대왕본 12본을 들었고, 『풍속무음』에서는 다른 무가집에도 없고, 현재 굿에서도 노래 부르는 일이 없는 본풀이로 버드남본과 영천이목사본이 있다.

본풀이나 아니나는 조사자의 분류의식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구연자가 본풀이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연구자는 구연자가 갖고 있는 설화에 대한 수용의식과 그 신성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른 본풀이와 같이 신화의 영역에 넣어 논의하려 한다.

진성기의 삼두구미본과 『풍속무음』의 버드남본은 유사한 내용이므로 비교적 내용이 잘 짜여진 진성기가 조사한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보조적으로 버드남본을 활용한다. 삼두구미본은 설화 내용을 참고로 할 때, 머리가 셋이고, 꼬리가 아홉인 괴물의 형상으로 한경면 고산에서 수집한 것이고, 버드남본은 대정읍 서림리(현재의 일과2리)에서 전승되던 것이다. 이 둘은 서로 이웃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서는 신화로 노래불러지거나 심방이 무가를 공부할 때, 선배심방들이 당시는 의례에서 노래불러지지 않으나 본풀이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는 자료이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갖는 것으로 본풀이가 아닌 민담으로 수집된 자료로는 대정읍에서 1편¹⁾, 경북 성주군 대가면에서 1편²⁾, 강화군 화도면에서 1편³⁾ 여주읍에서 1편⁴⁾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신화와 유사한 내용은 대정읍과 강화군과 여주읍의 자료이므로 논의에 포함시키지만, 이야기 구성상 전혀 다른 경북 성주군 대가면의 자료는 제외한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분류체계에 따르면⁵⁾ 삼두구미본풀이는 134(용맹이 모자라 지혜로써 이기기)에 속하며, 이는 용맹과 힘이 모자라 지혜를 써서 승리하는 인물의 이야기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지하국대적퇴치담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고, ‘사람 잡아 먹는 괴물 독

1) ‘와라진 귀신’,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안덕면 설화 윤추월, 여, 66 제보.

2) ‘울곡선생의 여우퇴치’, 『한국구비문학대계』 7-4, 134-135쪽, 경북, 성주군 대가면 설화, 나춘자, 여, 38세 제보.

3) ‘버드나무잎이 제일 무섭다’, 『한국구비문학대계』 1-7, 564-570쪽, 강화군, 화도면 설화 신석하, 남, 46 제보.

4) ‘여괴수 전설’, 『한국구비문학대계』 1-2, 43-44쪽, 안평군, 남, 83세 제보, 여주읍 설화.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설화분류형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1. 이기고 지기-(11. 이길 만해서 이기기, 12. 이길 만한테 지기, 13. 질 만한테 이기기)-(131. 시련을 물리치고 좌정한 신령, 132. 시련을 물리치고 이긴 영웅, 133. 죽을 고비 넘긴 영웅, 134. 용맹이 모자라 지혜로써 이기기, 135. 능력이 모자라 도움 얻어 이기기)

약으로 죽이기⁶⁾, ‘지렁이 자손 견훤 소금으로 대적한 영웅’⁷⁾ 이야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자료를 분석하면, 신화가 2편, 민담이 2편 전승하는 셈이다. 이들 4편의 내용은 잘 알려진 ‘지하국대적제치설화’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지하국대적제치설화와 삼두구미본의 구조적 동질성을 전승양상을 통해 밝히고, 신화와 민담의 차이점을 의례적 성격을 통해 드러낸다. 이어서 그 의례의 성격을 유추해 보고, 어떠한 문화 요소와 관련있는지를 추적하여 문화의 복합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화와 민담의 교섭 양상을 밝히려 한다.

II. 삼두구미본의 전승양상

이 설화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따르면 4편이 전승된다. 이 설화를 각각의 내용을 단락별로 나누어 간단히 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부〉

1. 삼두구미라는 백발노인이 산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괴물이다. <공간>
2. 가난뱅이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오자 그의 손녀(딸)을 달라고 하다. <혼인>
3. 사람 다리를 먹도록 하여, 거짓을 행한 자는 죽이고, 지시를 잘 따른

6) 위의 책, 134-2(사람 잡아먹는 괴물 독약으로 죽이기(영웅적이지 않은 인물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한 것까지 포함), p.152.

7) 위의 책, 134-5, 지렁이 자손 견훤 소금으로 대적한 영웅, p.154.

막내는 아내로 삼는다. <과제해결>

<후반부>

4. 막내는 괴물을 퇴치할 계획을 세운다. <위기 극복 계획>
5. 괴물에게 복종하는 듯 안심시키고, 잠을 재워 버드나무로 퇴치하다.
<위기 극복>
6. 재생하지 못하도록 재차 확인 퇴치하다(천평지평, 달갈, 끓인 장 등)
<퇴치>
7. 행복한 결말 <결말>
 - 조력자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꺼내어 살려주고 잔치 열다
 - 가난 때문에 딸을 팔았고, 그 결과 죽게 되었다며 한탄.
 - 버드나무로 재차 죽이다
 - 시신을 가루 내어 날리다

이 설화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야기로 나누어지며, 전반부는 타계에 살고 있는 존재인 괴물이 혼인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로 괴물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다. 후반부는 지상에 살고 있던 가난뱅이 나무꾼 딸이 타계의 존재인 괴물과 혼인을 하기 위해 타계로 간 후 벌어지는 이야기로 괴물에게 잡혀간 여성의 위기 극복 과정이 이야기의 중심 내용이며, 그 여성이 주인공이다. 이야기의 논의는 스토리가 시작되는 공간과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이야기는 본풀이와 민간 설화로 전승되고 있기에 이를 신화와 민담으로 나누고, 그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야기 내용을 단락별로 나누어 공통단락을 추출해 본다.

단락 명	진성 기본	풍속 무음	덕수 리본	강화 군본
①옛날 사람 형상의 괴물이 있었는데, 인간의 딸과 혼인하고자 하다.	0	0	0	0
②사람 다리를 먹어야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위협하다	0	0	0	0
③위로 두 딸은 약속을 어겨 불행하게 된다.	0	0	0	0
④셋째딸은 다리 흔적을 배에 묶음으로써 이를 극복하다.	0	0	0	0
⑤괴물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다.	0	0	0	0
⑥시험을 통과한 막내딸은 괴물이 집을 비운 사이에 퇴치할 방법을 모색하다	0	0	0	0
⑦귀가한 괴물을 편안하게 한 후, 주구(呪具)로 퇴치하다	0	0	0	0
⑧괴물의 시신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다	0	0	0	
⑨재생하지 못하도록 주술적 방법으로 퇴치하다	0	0	0	
⑩언니들을 찾아내어 귀가하다	0	0	0	0
⑪행복하게 부자로 살다				0
⑫시신을 모셔와 부친에게 불행을 알리다.	0	0		

이 표에서 각편 중 0 표시가 모두 있는 부분을 나누면 기본형은 ①-⑦까지로 그 내용은 연약한 여성이 주술적인 힘을 가진 버드나무를 활용해 괴물을 제치하는 것이고, 마무리는 괴물을 제치한 후, 괴물에게 잡혀있던 여성을 데리고 탈출하여 귀가하는 것이다. 집에는 가족이 있으니 행복한 결말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공통하는 모티브인 ①-⑦에서 괴물은 1차로 제치된다. 괴물을 죽이면 하나의 에피소드는 끝나게 된다. 그러나 죽었던 괴물이 재생하면서 다시 이야기는 긴장을 하게 한다. 그래서 1차와 같은 방법으로 죽인 후, ⑧과 ⑨에서 괴물의 시신을 가루로 만들거나 주술적 제치방법을 써서 죽이는 2차 제치방법을 쓰고 있다. 이와 같은 1차와 2차 괴물 퇴치방법은 제주도의 사례에서만 보인다. 즉 제주도의 자료는 본풀이로 전승되

고 있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강화도의 것은 ‘천평지평’이라고 써서 2차로 제치하는 주술적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 제주도에서는 주술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1. 공간의 의미

나무를 하여 팔아 세 딸과 사는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삼두구미를 만난다. 삼두구미는 어떤 사람이 허락도 없이 나무를 하느냐고 따진다. 나무꾼에게 따지는 점으로 보면, 그곳은 삼두구미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산이며, 거기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그의 소유임을 알겠다. 즉, 설화의 공간은 산이고, 거기에서 사건이 발생할 것임을 보인다.

나무꾼은 딸 3형제랑 사는데 가난했기에 그걸 극복하려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게 된다. 하지만, 허락을 받지 않고 나무를 했다는 잘못으로 앞으로 삼두구미에게 모진 고초를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추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무꾼에게 한 삼두구미의 제안은 매력적이다. 자신이 중매를 해 줄테니, 큰딸을 부자집으로 파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야기 전개 상 모순이 나타난다. 삼두구미는 자신이 부자집으로 중매를 해 주겠다고 하고서 부친에게는 많은 돈을 주고 큰딸을 사가고 있다. 결국 이야기의 흐름은 중매에 있지 않고, 큰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는 데 있다. 그러니 돈을 주고 딸을 사가는 것이다.

산 속의 새로운 공간은 산 아래의 삶의 공간과 너무나 다르다. 고대 광실 높은 집이 있어 잘 사는 것 같지만 산속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다. 외적으로는 부자집처럼 보여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생활은 다

르다.

이곳은 인간이 사는 세계와 다른 타계이다. 그곳이 나무꾼이 살고 있는 곳과 수평관계의 장소가 아니라 수직관계의 산 속이라는 점은 한국인의 원초적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⁸⁾ 이러한 공간은 비슷한 다른 설화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지하국대적제치설화에서 보면,

옛날 한 사람의 한량(무사)이 과거를 보려고 서울로 향하였다. 중도에서 그는 어떤 큰 부자가 어떤 대적에게 딸을 잃어버리고 비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중략--당신들은 아마 대적의 집을 찾으시겠지요. 여기서 저 쪽에 보이는 산을 넘어 가면 거기에는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 밑에는 흰 조개 껍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내고 보면 조개 껍질 밑에 바늘귀만한 구멍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륵돼지 이야기로 알려진 것이다.⁹⁾ 같은 전승의 다른 예로,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다. 너의 찾아다니는 아귀귀신의 소굴은 이 산의 저 쪽에 있는 산의 또 저 쪽에 있는 산 중에 있다. 그 산으로 가면 너는 거기서 이상한 바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바위를 들고 보면 겨우 한 사람의 몸을 용납할 만한 구멍이 있을 것이다. 그 구멍으로 내려가면 구멍은 점점 커지고 구멍 밑에서는 별세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 가 즉 아귀귀신의 나라이다.

8) 단군신화에서 천상 존재는 지상으로 하강하면서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 신시를 연다. 이것은 천상과 가장 가까운 곳이며, 우주목으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천강신화 요소는 고구려와 신라의 건국신화에서도 보이므로 한반도에 널리 산재해 있었음을 알게 한다.

9)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87.

건국신화에서는 천상이 신들의 나라요, 선계로 나타나고, 그 신들이 산위로 하강한다. 이 설화에서는 타계가 천상과 가까운 산중에 있지만 그곳에 있는 조개껍질이나 바위 아래를 통해 다시 지하세계로 통해 있다. 그곳은 백발노인이 말하는 아귀귀신의 소굴로 부정적인 악의 소굴이다. 삼두구미본풀이의 공간은 지하국대적퇴치설화의 세계와 동일한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결국 타계는 선계와 악계로 나뉘고 있는 셈이다.

2. 인물의 성격

이 설화의 등장인물은 가난한 나무꾼, 그의 딸, 삼두구미인 대적 이렇게 셋이다. 나무꾼은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딸까지 팔아버릴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괴물에게 팔려가는 딸의 보호자이지만 그의 역할은 혈연적 관련성만 보여줄 뿐, 설화 전편에서 그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

나무꾼은 괴물이 나타나 딸을 달라고 하니 그냥 순순히 주어 버린다. 강화도의 각편은 만약에 딸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니 죽음을 두려워하여 할 수 없이 괴물에게 주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 제주도의 자료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볼 때, 나무꾼은 괴물과 만남을 위한 기능만 하고 있는 셈이다. 괴물의 관할구역으로 들어가 나무를 하다가 소유주인 괴물에게 들키는 형국이다. 딸들만 나무하러 보내지 않고 자신이 딸들을 거느리고 나무하러 가서 괴물을 만났다는 점은 설화 전승자들이 보호자인 아버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장인 아버지가 가족의 식량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산에서 만난 괴물에게 딸을 주는 것은 혼인을 결정할 때 본인의 결정권보다 아버지의 결정권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아버지는 딸을 혼인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괴물은 산속에 사는 존재이지만 왜 거기에 사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산속 세계에 얼마동안 있다가 바깥세상에 나갔다 오는데, 두 언니를 잡아오고서 사람 다리를 내어주며 그것을 먹도록 한다. 그 다리는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는 존재로 괴물과 일체라 할 수 있다.

삼두구미는 큰딸이 산속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양쪽 다리를 빼서 주며 자신이 마을에 다녀오는 사이에 그것을 다 먹어야 한다고 한다. 백발노인으로 나타나는 삼두구미이므로 자신의 다리를 빼서 준 것은 결국 사람의 다리를 준 것이다. 큰딸은 사람이 사람의 다리를 먹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궁리 끝에 마루널판을 들어내고 그 속에 숨겼다.¹⁰⁾ 삼두구미는 돌아오자마자 다리를 다 먹었느냐고 묻는다. ‘예, 다 먹었습니다.’고 하자, ‘나 다리야’ 하고 부른다. 마루널판 아래에서 ‘예’ 하고 소리가 난다. 그러자 백발노인은 삼두구미 짐승으로 변신을 하여 ‘누구를 속이려 하느냐’며 부인을 때려죽인다. 삼두구미는 다시 백발노인으로 변신을 하여 나무꾼 집으로 와서 둘째딸을 데리고 간다. 그리고 언니에게 처럼 ‘사람다리를 먹으라’ 하고 먹지 않으니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둘째딸도 죽여 버린다.

삼두구미는 다시 나무꾼 집으로 가서 막내딸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 언니가 부잣집에 시집가서 잘 살면서, 친정에 인사를 오려 하는데 갖고 올 물품이 많으니 자신과 같이 가서 도와 달라고 하는 삼두구미의 제안에 속아 막내딸은 이를 진정으로 듣고 그를 따라나섰다.

하지만 막내딸은 속았음을 깨닫고 살아나갈 생각을 한다. 이놈을 달래야겠다고 마음먹고 ‘왜 나를 데려왔는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 그러

10) 진성기,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646-650.

자 삼두구미는 자신의 두 다리를 빼서 주며 9일 동안 마을에 다녀올 테니 그 사이에 ‘이걸 다 먹으라’ 하였다. 막내딸은 ‘다 먹겠다’고 대답한다.

그러면서, ‘영감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내가 저 다리를 다 먹는 것이냐고 묻는다. 삼두구미는 “난, 이 다리를 먹는 사람이 제일 좋아”라고 한다. 막내딸은 이어서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

대처 방법이 두 언니와는 다르다. 인용문을 통해 보면, 막내딸이 지혜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라 묻고, 다음에는 ‘그러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라 묻는다. 처음부터 싫어하는 것을 물으면 의심할 것이니 그렇게 한 것이다. 삼두구미는 자신이 주는 다리를 막내딸이 먹겠다고 하니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의 물음에 싫어하는 것을 알려준다. 날계란, 동으로 뺀 버드나무가지, 무쇠덩어리 이 3가지이다. 싫어하는 이유는 드러나지 않고, 막내딸이 그 이유를 묻자, ‘그것은 차차 알게 된다’고 할 뿐이다.

민담에서는 이렇게 질문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이 질문을 해결하는 내용이 뒤따른다. 이것이 민담의 주인공이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며, 이것이 해명될 때 사건이 끝나게 된다.

막내딸은 어찌할지를 몰라 울다가 날이 새자, 장작불을 피우고 그 다리를 태웠다. 타다가 남은 뼈는 전대에 말아서 배에 감아 두고, 계란, 버드나무가지, 무쇠덩어리를 구해 숨겨두었다. 그러나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왜 태워서 배에 감아 두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이것으로 보면 구체적이고 세밀한 이야기가 인과관계로 연결되며 민담으로 전승되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3. ‘사람 다리 먹기’ 과제의 의미

괴물은 나무꾼의 딸들을 잡아오고 나서 자신의 두 다리를 빼어 인간인 여성에게 먹도록 한다. 삼두구미 입장에서는 부부의 인연을 맺으려면 한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의 표현이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간으로 자라왔던 여성으로서는 같은 사람의 다리를 먹도록 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삼두구미는 인간과는 혼인을 할 수 없는 비인간적 존재이므로 인간인 셋째딸에게 사람의 다리를 먹임으로써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같은 비인간으로서 혼인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이제 시집갈 나이의 처녀 자신이다. 지금까지는 가난뱅이 아버지가 모든 결정을 다 해 주었다. 혼인을 위한 결정까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삼두구미와 같이 있는 현재는 자신이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을 잘 극복하면 행복한 삶이 도래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여성이 내려야 하는 결정은 중요한 문제이다. 더구나 결혼을 앞둔 결정이다. 따라서 이 설화는 여성의 입사식의 구술적 상관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삼두구미본풀이는 대적을 제치하고 셋째딸을 구출하는 영웅이 없고, 대적에게 잡혀간 여성 그 자신이 지혜와 용기로 대적을 제치한다. 여성을 구출해 주는 남성영웅이 없으니 결말에서 행복한 결혼이 될 수는 없다. 처녀를 구해주는 총각이 있어야 결혼이 이루어질텐데 처녀 자신이 괴물을 퇴치하였으니 그에 대한 보상은 괴물인 대적이 갖고 있던 금은 보화를 갖고 와서 부자로 잘 살았다는 결말이다. 구출자가 없이 대적을 퇴치하는 당사자가 미혼이요, 앞으로 혼인할 수 있는 나이의 여성이라

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성인으로의 과정을 거치는 입사식 의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¹¹⁾

삼두구미본은 결국 삼두구미와 셋째딸과의 갈등의 해결과정이다. 삼두구미는 남성적 존재이며, 산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 성격은 땅귀신이 다.¹²⁾ 그러한 자가 여성과의 혼인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생산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다.

사람(백발노인)의 형상으로 변한 삼두구미는 자신의 다리를 빼어 막내딸에게 먹도록 한다. 다리는 육체의 한 부분으로 자신의 속성을 지닌다. 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리일까? 그것은 다리의 기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다리는 사람의 온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산속을 찾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결국 삼두구미는 한 곳에 정착하는 존재이기보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다반사인 존재이다. 결혼 후는 아내인 셋째딸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데 튼튼한 다리가 아니면 곤란하다.

그러니 막내딸이 인간으로서의 속성을 버리고 자신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는데 자신의 일부인 다리를 주며 먹으라 한 것이다. 그 다리는 자신이 부르면 대답을 하는 자신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다. 그 다리가 막내딸의 배에 묶여 있어 나갈 수 없다고 하였으니 삼두구미는 자신과 한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막내딸이 자신의 피로 사람의 다리를 먹지 않고도 배에서 다리의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 민담으로서의 성격이 훨씬 강해진다. 하지만 윤추월본에서는 백발노장이 하강하여 괴물을 제치할 수 있는 방안

11) 그러나 문제는 남성의 성인식 사례는 많이 보고되었으나, 여성의 성인식 사례가 많이 보고되지 않은 점이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데 주저하게 한다.

12) 버드남본에서 '서방님 성명삼자를 알려주소서. 나는 땅 귀신 지귀니라.'라고 한다.

을 마련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딸의 지혜와 용기를 강조하기보다 하늘에서 백발노장이 하강하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은 인간은 다른 존재와 대결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하늘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백발노장의 하강 모티브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이해하면서 나타난 모티브라 생각된다.

4. 괴물 퇴치 과정과 의미

삼두구미는 땅의 신이라 한다. 지신이기에 그의 거주처는 천상이나 해양타계가 아닌 지하계일 것은 당연한데 공교롭게도 산속이다. 산은 지상에서 높은 곳이거나, 신이 거처하는 신성한 곳이다. 제주도에서 일반적으로는 높은 언덕을 오름이라 하면서도 일부는 산이라 지칭한다.¹³⁾ 제주도에서 조상을 매장한 묘를 산이라 하는 것도 신령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겠다. 조상은 지하계에 있지만, 그 후손은 지상계에서 그 산을 보호하며 제의를 행한다. 결국 산은 같은 땅이면서 신성한 곳을 의미한다.

지하계는 지하국대적퇴치설화에서 나타나듯이 대적이 거주하는 곳으로 일반인이 범접할 수 없는 곳이다. 지상계인 산속 역시 삼두구미가 거주하는 곳으로 고대광실 높은 집이 있는 곳이지만 일반인이 범접할 수 없는 곳이다. 이러한 곳에 거주하는 삼두구미는 산속에서 나무를 하던 나무꾼이 한숨을 내쉬면서 소리를 지르면 바로 자신을 부른다며 나타나는 존재로 인간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 게다가 인간인 여성을 구하여 아내로 삼고자 하는 인간과 공존하려는 존재이다. 따라서 지모

13) 현용준, 『제주도전설』(서문당, 1976, pp.20-21.)에 따르면, 한라산, 산방산, 영주산, 청산, 두력산으로 신령하다고 인식한다.

신의 성격인 여성성과는 다른 남성적 신격이다. 지신은 여성신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지신은 남성신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다.

셋째딸은 괴물을 퇴치할 생각으로 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영감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 이름은 삼두구미라는 땅 귀신이다.’

‘그러면, 왜 달갈이랑 버드나무랑 무쇠덩어리는 싫어합니까?’ ‘그것은 하늘 귀신이 땅의 일을 물어올 때 ---중략---달갈은 나는 눈도 코도 입도 귀도 없으니 모르겠다고 고개를 젓고, 동으로 벌은 버드나무가지는 뺏겼하니, 한번 후리치면 사족이 저러서 운신을 못하고, 무쇠덩어리는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변동이 없어 내가 조화를 부릴 수가 없으니 싫다.’

‘또 싫어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날달갈로 얼굴에 던져 맞으면 까져서 모두 칠해지면 앞도 보지 못하고, 무쇠덩어리로 맞으면 가슴이 먹먹하므로 싫어하는 것 아니까.’

질문의 초점은 백발영감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첫째요, 다음은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둘째이다. 막내딸과 삼두구미는 서로의 신뢰를 전제로 대화를 하고 있지만 대화 속 의미는 다르다.

막내딸은 ‘왜 3가지 물건을 싫어하는가?’ 하고 묻는다. 이것에 대해 삼두구미는 조그마한 의심도 없이 자신의 약점을 다 드러내고 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서로의 의심을 풀 만한 전제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즉 ‘왜 싫어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왜 알려고 하는가’ 하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유를 묻지 않고 바로 해답을 제시하는 경우이다. ‘왜’의 문제는 3가지 물건의 의미를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삼두구미의 대답으로 보면, 이유는 3가지 물건의 속성 때문임을 알겠다.

달갈은 훗날 병아리라는 새 생명체로 탄생하지만 달갈 그 자체는 눈,

코, 귀가 없다. 생명체이면서 아닌 존재이다. 그러면서 괴물을 퇴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니 싫어한다. 그 힘은 우리의 신화에서 난생 모티브가 보여준다. 건국주의 출생이 난생이었으니 달갈은 신적인 존재를 퇴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인식한 것은 아닐까.

다음, 무쇠덩어리는 돌을 깨뜨리고, 화살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강하다. 그러니 귀신에게도 그렇게 비칠 것이라 생각한 것 같다. 게다가 쇠를 활용하여 사람을 공격하면 나무를 이용한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러므로 쇠를 다루는 자가 다른 존재보다 힘이 세다. 결국 쇠는 사악한 존재에 대한 위협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겠다. 이렇게 쇠를 다루는 인물은 야장이며, 이들은 이란, 몽골 브리야트 등에서 왕이었다. 탈해가 호공의 집을 차지할 때 ‘우리 집은 원래 대장장이였습니다’고 하여 자신의 집안이 대장장이였음을 밝히고 있다. 대장장이가 대를 이어 세습하였음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원래 대장장이의 자손인 탈해도 역시 대장장이인 셈이다. 그러니 무쇠의 의미는 난생 모티브에서 보여주는 건국주와 같이 영웅의 탄생과 관계가 있다.

다음으로 버드나무를 싫어하며, 특히 동쪽으로 뺨은 나뭇가지를 싫어한다고 했는데, 이는 동쪽이라는 방향성과 버드나무라는 속성이 결합되었다. 동은 해가 솟아오는 쪽으로 시작의 의미가 있고, 그 해는 동에서 출발하여 정남향에서 그 위용을 자랑한다. 그러니 어둠과 죽음의 의미를 지니는 서쪽과 북쪽으로 뺨은 가지는 힘이 없고, 밝음과 탄생의 의미를 지닌 동쪽과 남쪽으로 뺨은 가지는 힘이 있다고 인식한 듯하다.

그리고, 버드나무는 앞에서 든 왕과는 달리 신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삼국유사 권제5 神呪의 ‘惠通降龍’에 따르면, 당나라 왕실 공주 몸에 병마를 주던 용이 혜통에게 쫓겨 신라로 돌아와 버드나무에 의탁한다. 그리고 자신을 없애도록 혜통에게 말한 정공을 복수한다. 즉

버드나무는 복수의 화신으로 나타나는 썸이다. 여기서 버드나무에 용이 의탁해 있었다는¹⁴⁾ 것은 버드나무 자체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용이 의탁해 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겠다. 따라서 버드나무가 괴물을 제치할 수 있음은 버드나무에 용이 의탁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버드나무에 대한 이러한 신앙인식이 괴물을 제치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고 인식한 것이라 본다.

결국, 삼두구미는 자신이 셋째딸에게 알려준 방식대로 날달걀과 무쇠덩이를 맞고 죽는다. 그러나 비인간적 존재인 괴물이기에 인간처럼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재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막내딸은 날달걀에 천평지평(天平地平)이라 써서 삼두구미 겨드랑이에 잡혀두었다. 천평지평(天平地平)은 주술력을 가진 문구이다.

이상으로 볼 때, 달걀, 버드나무, 무쇠는 주술적 힘을 발휘하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조상의 묘소를 이장할 때 이 3가지 물건이 쓰인다. 조상 묘를 이장하는 절차를 간단히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상 묘소에 가서 단헌단작으로 이제부터 조상의 묘소를 옮기겠으니 토지신은 놀라지 말라고 토지신께 축문을 올리며 헌작한다. 그리고 묘를 허물고 흙을 파낸다. 조심스레 조상의 뼈를 모아 처음 매장할 때와 같은 순서대로 한다. 시신을 염습하고 수의를 입히듯이 칠성판 위에 수의를 놓고, 수의 위에 머리부터 다리까지 뼈를 모아 순서대로 놓고 잘 시신을 묶듯이 잘 싸서 입관 절차를 거친다. 뼈를 다 골라낸 후에는 못자리에 날달걀, 버드나무 가지, 무쇠덩어리 3개를 땅을 파서 묻고 입관한 뼈를 이동한다.

14) 『삼국유사』, 권제5 神呪의 ‘惠通降龍, 乃與恭 以麟德二年乙丑 還國而黜之 龍又怨恭 乃托之柳 生鄭氏門外 恭不之覺 但賞其蔥密

오랜 세월 매장방법이 전승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교식 의례가 행해지기 이전에는 무속식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럴 경우 제주에서 행해지는 이묘의례에서 날달걀, 버드나무, 무쇠 3가지를 묘소에 매장하는 것은 무속의례의 흔적을 보여주는 자료라 생각된다. 게다가 심방이 삼두구미본풀이를 다른 신화와 동일하게 인식하여 전승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날은 남성중심의 유교식의례에 밀려 전승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남녀 공동의 무속의례에서 조상을 숭상하던 의례의 잔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II. 문화배경

1. 혼인방식

설화에서 괴물은 지상의 딸을 취하려 한다. 가난뱅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좋은 곳에 중매를 시켜주겠다거나 자신에게 딸을 팔도록 한다. 그리하여 그 딸을 데리고 자신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가지만, 딸이 의심스러워하자 ‘너는 천금을 주고 샀으니 내 소실로 하겠노라’고 한다. 이는 혼인방식에서 구매혼적 흔적을 보이는 것이라 판단된다.

인류의 혼인 방식에는 내혼제와 외혼제로 나뉜다. 어떤 특수 집단의 사람이 그 집단의 성원과 결혼하는 것이 내혼제요, 그 집단의 성원과는 결혼을 금하는 것이 외혼제다. 이것은 그 기준에 따라 ①촌락 내외로 한정하는 것 ②씨족 내외로 한정하는 것 ③종족 계급권 내외로 한정하는 것 ④사회적 계급 내외로 한정하는 것 등으로 나뉜다.¹⁵⁾ 또 혼인은 그

15) E. Westermarck 著 · 青山道夫 譯, 『婚姻と離婚』, 改造社, 1933, pp.23-30.

혼처로 보아 모처혼(matrilocal marriage) 부처혼(patrilocal marriage) 일시적 처처혼 등으로 나뉜다. 모처혼이란 妻處婚, 招婿婚이라 불리우는 것으로 남자가 처가에 가서 일생을 사는 婚法이요, 夫處婚이란 처가 남편 집에 들어와 일생을 사는 혼법으로 嫁入婚이라고도 한다. 또한 모처혼은 모계제 사회의 본격적 혼인 방식이요, 부처혼은 부계제 사회의 본격적 혼인 방식이다.¹⁶⁾ 한편 일시적 처처혼이란 婿入婚이라 하는 것으로 남자가 혼인하면 어느 기간 동안 처가에서 살다가 남자의 집으로 처를 데려다 사는 것으로 모처혼과 부처혼의 중간적 특성을 가지며 모계 사회의 혼법에서 부계 사회의 혼법으로 변용하는 과정의 산물이라 한다.¹⁷⁾ 모처혼은 모계사회 하에서 나타나는 혼인 방식이므로 이러한 체제 하에서 가정의 권한은 父보다 母에게 있게 마련이고 부처혼은 부계 사회 하에서 나타나는 혼인 방식이므로 이 경우는 母보다 父에게 가정의 모든 권한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설화는 괴물이 지상의 여성과 혼인하고 자신이 사는 산속으로 데리고 가는 점으로 보아 외혼제이며, 돈을 주고 배우자를 사오는 구매혼이고, 아버지가 딸의 혼인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음으로 보아 부계제 사회의 혼인방식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2. 장례방식

큰딸과 둘째딸은 삼두구미에게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막내딸이 방문을 열어 ‘형님들 원수를 갚았으니 빨리 나오세요’ 하니 ‘이 방에 있다’라고 대답한다. 죽은 자가 대답한다는 것은 설화의 세계에서나 가능하다.

16) 松村武雄, 『日本神話の研究』, vol.4., 培風館, 1958, pp.799-804.

17) 위의 책, p.804.

형님 소리가 들려 안방문을 열어 보니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다. 막내딸은 그 뼈를 모두 주워 담아 집으로 돌아와 울레 밖에 모셔둔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언니들이 죽게 된 이유를 말한다. 사람 다리를 먹으라는 지시를 어겨서 죽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난이 죄’라 하며, 칠성판을 장만하고 뼈들을 모아 시신을 감장하듯 하고, 괴물을 퇴치하려고 버드나무 가지를 한 아름 가득 준비하고 산중으로 올라갔다.

산중에서는 이미 퇴치된 삼두구미가 죽어가다가 살아나려고 하고 있었다. 막내딸과 아버지는 힘을 합쳐 버드나무 가지로 다시 삼두구미를 때려 죽였다. 그리고 방아확에 넣어 빵아 가루를 내어 바람에 날렸다.

삼두구미는 1차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2차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1차 죽음은 버드나무 가지의 힘으로 퇴치하였고, 2차는 그 시신을 방아확에 넣어 빵아 가루를 만들고 바람에 날린다. 이것은 장례 제도의 영향과 관련 있는 듯하다.

삼두구미본풀이에서는 괴물의 시신을 빵아 가루를 내어 바람에 날리지만, 덕수리 윤추월본 민담에서는 괴물의 시신을 빵아 만든 가루로 떡을 만들어 새에게 주고 있다. 1차적으로 버드나무로 죽임을 당한 시신을 다시 훼손하여 2차적으로는 가루로 만들어 공중에 날린다는 것은 장법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닐까. 시신은 2번의 죽음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버드나무로 죽임을 당한 1차 죽음 후 괴물은 버드나무의 효력이 약화되자 다시 재생하려 한다. 이를 확실하게 제치하고 다시는 재생하지 못하게 시신을 가루로 만들어 하늘로 날려버리는 데 이것은 2중 장제의 흔적은 아닐까? 2차 죽음에서 시신이 가루로 만들어지고, 다시 떡으로 만들어져 새에게 먹이는 방식은 그 장법이 천장(天葬)과 유사하다.

천장은 시신을 칼과 도끼로 해체하여 독수리에게 던져주는 시체 처리

방식이므로 조장(鳥葬)이라고도 하며, 과거에는 그냥 시신을 황야에 내 버려두었으므로 풍장(風葬)이라고도 한다.¹⁸⁾ 천장은 티벳에서 행해진 장법의 하나이다.

티베트에는 이 외에도 시신을 땅에다 묻는 매장 방식과 시신을 불에 태운 뒤에 그 재를 흩뿌리거나 봉안하는 화장 방식이 일반적이다.¹⁹⁾ 또한 시신을 탑 안에 봉안하는 탑장, 그리고 강물에다 시신을 던져버리는 수장 방식이 있다. 티벳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천장이며,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방식이 탑장이다. 이는 죽은 이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정도에 따라 선택하는 장례방식에 따른다.²⁰⁾ 가난한자거나, 신분이 낮은자는 수장을 하며,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는 토장을 한다. 반면에 화장은 부귀한 사람과 고승들의 장례법에 속한다.

천장은 죽은 뒤에 시체를 독수리들이 먹어치워야 하늘에 올라갈 수 있거나, 혹은 부유한 집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여긴다.

일반적으로 두세 사람의 천장사가 한꺼번에 작업을 하며 천장사가 시체를 포대기에서 꺼내 천장바위 위에 놓고 흰 천을 벗겨낸 다음, 시체의 허리 부분에다 밧줄을 묶어 돌에 매달아 시신을 지탱하도록 한다. 손과 다리의 뼈는 도끼나 망치로 부수어 버린다. 체계적으로 작업이 진행되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천장터 사방에는 백여 마리의 독수리와 까마귀들이 날아와 조용히 앉아 풍성한 음식 먹기를 기다리게 된다. 티베트인들은 독수리를 신성한 동물로 믿는다. 천장사는 시체의 묶여진

18) 임재해, 『티베트의 장례풍속과 ‘천장’의 문화적 해석』, 『비교민속학』, 비교민속학회, 1998. p.53.

19) 임재해, 위의 글 p.55.

20) Written by Tiley Chodag, Translated by W.Tailing, Tibet: The Land and The People(New World Press, Beijing, China, 1988, 임재해, 위의 글 p.55 재 인용.

끈을 풀고 난 후에 뼈와 고기가 구분이 안 된 머리 부분을 잘라 내고, 근육이 붙은 굵은 뼈는 나이가 젊은 천장사에게 쪼개도록 한다. 머리 부분은 노련한 천장사가 처리한다. 천장터 주변의 큰돌로 머리를 부수고 뇌를 꺼낸 후에 머리를 완전히 으깬다. 그런 후에 참과 가루와 살점과 뼈 부서진 것을 버무려서 독수리에게 주어서 머리와 뼈까지 모두 먹도록 한다. 독수리가 시체를 다 먹고 난 후 하나둘씩 날아오르게 되면, 먹다 남은 뼈와 고기는 까마귀가 먹게 된다. 『먹고 남은 뼈는 참과와 같이 넣어서 잘게 부순 다음 개가 먹도록 한다. 만약에 뼈나 고기가 남게 되면 천장사는 이를 태워 재로 만들어 산자락에 뿌리기도 한다.』²¹⁾

불교가 티베트에 들어오면서 윤회설의 영향을 받아 전래의 풍장이 천장으로 발전하였다. 천장은 불교의식의 하나로 정착되었으며, 불교가 라마교 곧 티베트 불교로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장례 풍속이 티베트 사람들에게 널리 실시되었다.²²⁾

제주가 몽골의 지배기 동안 100년 가까이 이러한 장례풍습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 그러면, 티베트의 불교가 제주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신화적 속성을 지니게 하였을까.

IV. 신화와 민담의 교섭

삼두구미본풀이의 내용은 ‘사람 형상의 괴물이 인간의 딸과 혼인하려 하자 셋째딸이 피를 내어 괴물이 무서워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주구(呪具)로 퇴치한다’라는 이야기를 기본형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의 설화는

21) 임재해, 위의 글, pp.63-65 참조.

22) 임재해, 위의 글 p.71.

악을 퇴치하고 행복한 결말을 이끈다는 점에서 민담으로 전승되더라도 아무 무리가 없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전반부는 괴물이 강자의 논리로 약자를 굴복시키고 있고, 후반부는 약자인 여성이 지혜를 이용하여 오히려 강자를 굴복시키고 제치하고 있는데, 이는 이야기의 초점이 괴물보다는 셋째딸에게 두어지고 있고, 이 여성에게 위기 극복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의 신화적 의미는 여성의 입사식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입사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로 지하국대적제치설화가 있다. 이는 여성이 납치되고 영웅적 인물이 그 여성을 구출해 오는 줄거리여서, 여성뿐만 아니라 상대자인 남성의 입사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같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처녀 납치와 부인 납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³⁾ 처녀가 납치되는 경우는 구출한 영웅과 혼인하는 성인식의 구술적 상관물로서의 성격을 보이고, 부인이 납치되는 경우는 남편이 구출토록 하고 자식의 출산으로 나타난다. 이미 결혼한 상태이므로 부인의 여성성을 재생시키는 의례의 반영으로 본다.²⁴⁾ 즉 불임여성이 지하국대적에게 피랍된 후 구출되는 것은 처녀의 구출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곧 여성성의 재생이다. 하지만 어느 설화에서나 구출하는 남성의 영웅성에 초점이 두어져 남성의 입사의례의 반영이 강하다.

피납녀가 구출된 후 영웅을 출산하면 이는 신화형에 속하고, 피납녀를 구출해 준 남성과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게 되면 민담형에 속한다.²⁵⁾

23) 주명희, 「부녀납치형 대적퇴치설화고」,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p.30.

24) 줄고, 「해가 배경설화의 기자의례적 성격」,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문학회, 2006, pp.319-340.

25) 노성미, 「지하국대적제치설화형 민담의 구조연구」, 경남대학교 석사논문, 1986.

삼두구미본풀이에서 셋째딸은 괴물에게 잡힌 상태에서 사람의 다리를 먹으라는 과제를 혼자만의 결정으로 해결하며,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움을 용기와 지혜로 극복해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삼두구미본풀이에서는 지하국대적제치설화와 달리 괴물에게 잡혀간 여성을 구하는 남성 영웅이 없다. 즉 영웅의 용맹성이 아닌 약자의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해낸다. 마치 호랑이에게 잡혔다가 지혜를 이용하여 위험을 극복하는 토끼의 능력과 같이 강자에 대한 약자의 승리를 지혜를 활용하여 성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담의 일반적 특징이다. 이렇게 볼 때, 삼두구미본풀이를 구성하는 설화의 원형은 민담에서 출발한 셈이다. 괴물에게 잡혀간 여성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괴물을 퇴치한 후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는 설화가 민담으로 전승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제주도에서 삼두구미라는 괴물과 가난한 집안의 셋째딸의 이야기로 변이되면서 삼두구미본풀이로 전승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성인식에서 남성의 힘과 영웅성은 남성의 능력을 확인하는 기준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여성에게도 동일하며, 그 기준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혼인 적령기에 이른 여성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때, 앞서 살핀 강화도본은 민담으로 전승되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그러한 이야기가 신화로 전승되고 있다. 신화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의례가 있어야 한다.

삼두구미본풀이의 내용은 괴물의 위협을 여성의 지혜로 극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입사의식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음을 상정했다. 그렇다면 여성의 어떤 속성이 지혜로 나타나고, 강한 괴물의 위협을 퇴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풍요와 재생이라는 여성성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여성의 생산력은 풍요요, 토지의 재생성은 바로 여성의 생산력을 의미한다. 탐라

시대 제주도 장례는 어떠한 방법으로 치러졌는지 알 수 없으나, 고려에 복속되었음을 고려하면 본토에서 나타나는 장법이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바꿔 말하면, 그 장법은 오늘날 행해지는 매장을 의미한다. 매장을 했다는 문헌상 가장 오랜 기록으로는 『세종실록』 2년(1420)의 것으로 다음과 같다.

제주의 전 주부(前 主簿) 문방귀는 그곳(제주·필자) 풍속이 3년상을 행하지 않지만, 병술년에 아버지가 죽었을 때 3년 동안 무덤을 지켰으며 (후략).

이것은 제주에서도 유교식 제의를 행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지만 조선조 초기에 매장을 했다는 근거이다. 이러한 매장의 신앙적 의미는 후손의 풍요를 기원하기 때문이다. 과거 후손의 풍요는 금전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다.²⁶⁾ 그래서 조상의 묘소를 정할 때, 재산이 많아지는 것보다 후손이 많은 길지를 택한다.

풍수사상은 중국 전국 시대 말기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한국에는 삼국시대 이전에 전래되었다고 하므로 이 영향을 제주도도 받았음을 알 수 있겠다. 제주도 장례에서는 명당에 조상을 모시면 4대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고 하여 조상제사도 4대까지 지낸다. 하지만, 후손이 하는 일마다 불행해지면 조상 묘소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조상이 죽고 장사를 지내는 초상 때처럼 모든 의례절차를 지켜 장사를 지낸다. 이렇게 지낸 후는 조상이 명당에 모셔져 후손에게 복을 주듯이 그동안의 잘못된 곳에 모셨던 것은 모두 잊고 새롭게 후손에게 복을 달라는 뜻이 있다. 이 때, 이묘하면서 시신을 파낸 후,

26) 현승환, 「제주도 풍수설화의 이해」, 『탐라문화』 2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

달걀, 버드나뭇가지, 무쇠덩어리를 그 자리에 묻는데, 이것은 사악함을 제거하고, 풍요와 재생의 속성을 지니게 하는 주술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오늘날 이묘시에는 유교식으로 행하지만 과거에는 무속식으로 행했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삼두구미본풀이는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 남아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설화가 본토에서 발견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 전체에서 전승하던 광포설화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부의 강한 문화적 영향이 미치게 되면 고정적으로 전승되던 문화요소는 변용을 거친다. 역사적으로 제주도에 미친 외부 영향은 100여 년간 몽골의 지배라 할 수 있다.

원나라는 삼별초를 평정한 후 제주도에 탐라총관부를 두어 1356년에 폐쇄될 때까지 100년 가까이 관할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주목 성씨조에 보면 몽고군의 자손이라고 하는 성씨가 조(趙), 이(李), 석(石), 초(肖), 강(姜), 정(鄭), 장(張), 송(宋), 주(周), 진(秦) 씨 등으로 나타나 있고, 양(梁), 강(姜), 대(對) 씨의 본관이 운남(雲南), 좌(左)씨는 본관이 중국의 청주라 하니 몽골 계통의 성씨는 무려 14 개가 되어, 몽골 지배기에 몽골 문화의 유입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이 제주에서 사망하면, 본국에서의 풍습대로 하였을 것이니, 이것을 본 제주민들이 그 영향을 받았을 것임은 우리가 아니다.

몽골의 장법은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지만, 몽골이 제주를 지배하던 시기는 라마교를 신앙하던 시기이다. 몽골이 신앙하던 라마교가 제주도를 지배하던 시기에 들어와 제주도의 토착신앙과 융합하여 변용을 일으킬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오늘날의 문화요소를 참고로 할 때, 전적으로 몽골의 문화를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 몽골의 장례법 즉 천장법이 남아있지 않아 이러한 추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하원에 있는 법화사

가 원나라 당시 세워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몽골의 신앙이 어떤 형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고려 때 제주도의 장례가 민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제주민들이 전승해 온 구비문학 자료인 삼두구미본풀이를 통해 볼 때, 몽골과 장례문화 요소인 천장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몽골의 천장 요소와 유사한 것으로는 시신을 가루내고,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 새에게 먹이는 방식이라고 보는 것이다.

삼두구미본풀이에서 셋째딸이 괴물을 퇴치할 때, 1차로 버드나무를 활용하여 괴물을 퇴치한다. 단순히 괴물을 ‘죽이는’ 행위는 제주민들의 삶의 방식의 한 반영이겠지만, 다시 살아나는 괴물을 버드나무로 퇴치하여 그 시신을 가루로 만들고, 이를 새에게 먹이는 것은 몽골의 장제에서 행하는 조장(鳥葬)의 흔적이 아닌가 한다. 이것이 몽골이 남긴 성씨 집단과 더불어 얼마동안 전승되었을 것이다.

몽골 지배는 본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기에 본토에도 이러한 흔적이 남아있어야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본토에서 그러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이것은 조선조에 성리학이 통치 이념이 되면서 유교식의례가 무속식 의례를 대치하면서 일찍 사라진 결과라 본다.

절해고도인 제주도는 중앙의 통치이념이 강하게 미치지 못하였다.²⁷⁾ 그러던 것이 조선조에 문화적으로 중앙 정부에 완전히 복속되면서 민간에서 이묘시 행해지던 무속의례가 유교식으로 대치되었고, 그 과정에서 본풀이도 서서히 생명력을 잃게 된 것이라 보인다.

27) 날개달린 장사 전설인 경우, 본토에서는 날개달린 아기장수가 태어나면 부모가 직접 아이를 죽이지만, 제주도의 설화는 날개만 제거하고 아이를 살린다. 아이를 죽이는 이유가 3족을 멸한다는 데 있지만, 제주도에는 그러한 행정적 지시가 강하게 미치지 못하였기에 날개달린 아이의 출생을 숨길 수 있고, 날개만 잘라 아이를 살리더라도 무사했음을 보인다.

V. 결론

이상의 논의는 ‘본풀이와 민담과 어떤 수수관계가 있었을까’에 관심을 두고 진행해 왔다. 이것은 주변국 설화를 대상으로 설화의 분포와 전파 관계를 살피지 않고 한국의 자료만을 갖고 논의하였기에 다행이 먼 저인가 아니면 달같이 먼저인가의 논의처럼 불명확할 수 있다.

오늘날 전승되는 설화가 처음에는 신화로 전승되었는지, 민담으로 전승되었는지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내용 속에 신화적 속성을 띄고 있음은 추론해 볼 수 있다. 삼두구비본풀이는 이러한 전제에서 각 편들을 추론한 결과 본토에서는 민담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제주도의 것은 신화적 속성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화라면 의례가 동반될 수 있는데, 삼두구비본풀이는 여성의 성인식을 반영하고 있었고, 제주도에서는 이 본풀이가 이묘 시 행해질 수 있는 무속의례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이것은 여성의 성인식이 가임여성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생산과 풍요를 의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장례 후 이묘하는 것은 풍수지리에 따라 매장했던 조상의 시신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여겼을 때 나타난다. 그래서 생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점은 불임여성이 가임여성이 되도록 하고, 이묘시에는 그 영향이 후손에게 미쳐 자손의 풍요라는 복을 가져다 주는 점을 동일시한 결과라 보았다.

게다가 제주도의 본풀이에는 몽골의 장제 영향으로 풍장 요소가 개입되어 있어 기존에 전승되던 본풀이의 내용이 장제와 유관함을 추정할 수 있다. 한국에서 행해진 수상장, 생빈놀이, 토롱 등이 2중장제의 존재이며, 또한 주변국 오키나와의 2중장제의 모습을 고려할 때, 제주에서도 2중장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몽골의 라마교에서 행해지던 천장 모티

브가 본풀이 속에 수용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추론이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의 장법에 대한 규명을 할 수 없는 한,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른 후 귀양풀이, 시왕맛이 같은 무속의례가 있고, 생사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긴 차사본풀이와 같은 신화가 있는 한, 이묘 시에도 무속의례가 행해졌을 것이라는 점은 추론이지만 설정이 가능하다. 이같은 추론을 넘어 확증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주변국 현지조사를 통한 자료로서 설명의 근거를 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겠다.

참고 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E. Westermarck 著 · 青山道夫 譯, 『婚姻と離婚』, 改造社, 1933

E.B. Tylor : Primitive Culture, Vol. I., London, 1871

M.A. Czaplicka, A Study in Social Anthropology, Aboriginal Siberia, Oxford, 1914

Mircea. Eliade, Shamanism, Bollingen Series, Princeton, 1974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8

三品彰英, 『日鮮神話傳説の研究』, 平凡社, 1972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87

松村武雄, 『日本神話の研究』, vol.4., 培風館, 1958

林繼富, 「생명의 歸宿-藏族의 영혼관념 試釋」, 邦錦花(西藏民間文藝雜誌,, 1990년 3월호)

임재해, 「티베트의 장례풍속과 ‘천장’의 문화적 해석」, 『비교민속학』, 비교민속학회, 1998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2, 1-7, 7-4, 9-3

현승환, 「제주도 풍수설화의 이해」, 『탐라문화』 2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

현승환, 「해가 배경설화의 기자의례적 성격」,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문학회, 2006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Jeju island's Bonpuri and folktale Through Samdugumi-Bonpuri

Hyun, Seung-Hwan*

Nowadays, we classify tales into three groups, myth, legend and folktale. But no one can affirm the starting of these three things. Some says that myth has been changed into legend or folktale as the divinity of myth disappearing, others say folktale change into myth as the divinity is added to folktale. As you see, it is impossible to state firmly the relationship of these three things.

In Jeju island, exorcists narrate and hand down twelve Ilbansin-Bonpuri. But according to the past material recorded, there are myths that are not being narrated nowadays. One of them is Samdugumi-Bonpuri

The first part of Samdugumi-Bonpuri is about monster hoping to marry, and the hero of first part is monster. The second part is about the story of a woman on earth who goes to the other world to marry monster, and the hero of second part is the woman.

The rough outline is the process of woman's overcoming hardships.

The space of Samdugumi-Bonpuri is mountain, and every event take place in mountain. All of these events have the same divinity of myth of founding of a country. Up the mountain is world of goodness, down the mountain is mundane world while world of evil. There are three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characters in main event. Father, monster, and three daughters. And the main event of Samdugumi-Bonpuri is about conflict having to eat man's leg or not. The last born daughter solves this difficult trouble.

We can presume that woman's solving the most difficult trouble is a coming-of-age ceremony.

And in this Samdugumi-Bonpuri, to give woman an ability to overcome hardships in the real world, it shows the victory of a woman fighting with monster symbolizing hardship.

Generally, we think that woman can not kill a monster. But, the last born daughter settles the problem using divine objects.

These objects are egg, willow, and iron. And these objects are nowadays used in ceremony of shifting a tomb performed after funeral. That is, woman overcomes obstacles by power of incantation. And we can find this power of incantation in tale of oviparity, incantatory property of a willow, heroic property of a smith etc.

In Samdugumi-Bonpuri, there are way of purchase marriage, way of exogamy, and way of marriage performed in the society of patrilineage. Besides, way of funeral appeared in Samdugumi-Bonpuri is way of performing funeral two times. And this is similar to that of sky burial of Tibet.

I presume that this is because of the influence of Mongolia's occupying Jeju island.

In Korea proper and Jeju island, tales are handed down by way of folktale and myth as above mentioned. These have character of a coming-of-age ceremony of a rite of passage. Especially, a coming-of-age ceremony of woman has property of abundance and rebirth. These properties function promoting friendly relations between ancestor and descendant with inflow of the theory of divination based on topography. It is because descendant thinks that they enjoy abundance of life in real world thanks to ancestors.

Key Words

Samdugumi-Bonpuri, way of marriage, way of exogamy,
a coming-of-age ceremony, sky burial, Lamaism

교신 : 현승환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E-mail : hyunsh52@jejunu.ac.kr 전화 : 064-754-3217)

논문투고일 2009. 07. 07.

심사완료일 2009. 08. 04.

게재확정일 2009. 08. 17.